

# ‘지역 상권 활성화’ 위해 현장 소통 나서

우범기 전주시장, 웨딩거리 일대 글로벌 상권 구역서 글로벌·윈도심 상인·청년들과 상권 비전 공유

우범기 전주시장이 윈도심 상권 공동체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상인과 청년 상인, 현장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췄다.

전주시는 지난 17일 글로벌 상권 프로젝트 구역인 완산구 웨딩거리 일대에서 웨딩거리 상인회장을 비롯한 골목 상인들과 글로벌 상권의 청년 상인들, 상권 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분위기로 정보를 공유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커피챗’을 개최했다.

‘커피챗’은 형식적인 회의에서 벗어나 커피 한 잔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부담 없는 소통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해법을 찾고자 하는 대화의 장으로, 이날 행사는 소상공인 정책과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지역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가 등과 함께 자유롭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현실적인 어려움과 도전 방안, 상권 비전을 공유했다.

또 지속 가능한 상권 생태계와 상생 모델을 찾기 위한 대화의 장을 이어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17일 글로벌 상권 프로젝트 구역인 완산구 웨딩거리 일대에서 웨딩거리 상인회장을 비롯한 골목 상인들과 글로벌 상권의 청년 상인들, 상권 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를 공유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커피챗’을 개최했다.

특히 이날 커피챗에서는 글로벌 상권 프로젝트 대표 기업인 크림톤의 전정환 부대표가 ‘글로벌 상권 추진과 향후 발전 전략 공유’를 주제로 발제했으며, 오승훈 공익마케팅 스쿨 대표의 ‘기업가형 소상공인 및 상권 활성화 위한 제안’이 이어졌다.

이러 우 시장은 소상공인 정책과 상권 공동체와 문제 해결 등 상권 활성화 정책 방안, 상권의 방향성에 대해 지역 소상공인과 로컬크리에이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통에 주력했다.

시는 이날 행사에서 공유된 내용을 향후 소상공인 및 상권 활성화 정책

추진시 반영하는 한편, 앞으로도 꾸준한 소통을 토대로 상권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와 대안을 듣고 나누며 관련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소통의 장으로 상권 공동체와 현상 등 상권 문제와 소상공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과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돼 뜻깊었다”면서 “지역의 위기 상황에서 골목상권과 상인이 지역 상권 활성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전주시는 민간과의 협력,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펼쳐 잠재된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 글로벌 상권 창출팀은 지난해부터 로컬문화 콘텐츠의 연결과 융합을 통한 ‘K-라이프스타일’ 글로벌 테마상권 조성을 목표로 △상권 운영모델 개발 △상권 활성화 협업 추진 △에비차임가 개발 △동네상권 건설 팀 △앵커스토어 기업 발굴 및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율상권구역 지정 등 글로벌 상권의 지속 가능성과 활성화를 목표로 활동 중이다.

／권희성 기자

## 사회적경제 박람회 in JEONJU

전주시, 24~25일 사회적경제기업 대거 참여 축제 개최

공동의 이익과 나눔을 실천하는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대한민국 사회적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만날 수 있는 축제가 전주에서 열린다.

전주시는 오는 24일과 25일 시청 앞 노송광장 일원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는 ‘제7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in JEONJU’를 개최한다.

이번 제7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전국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한 곳에서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고, 사회적경제 정책과 다양한 사회적경제 연계 행사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대규모 사회적경제 축제이다.

‘S+ 회연대경제로 세상을 E롭게’라는 표어(슬로건)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개막식 △폐막식 △전국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전시·판매하고, 체험할 수 있는 ‘판매체험관’ △사회적경제 정책과 역사, 자치단체 정책을 알 수 있는 ‘정책홍보관’ △정책 포럼 △시민을 위한 다양한 체험 및 참여 프로그램 등의 ‘부대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먼저 첫날 오후 3시 ‘개막식’에서는 주요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 타악공연과 선언문 낭독, 퍼포먼스 등을 통해 축제의 서막을 알린다.

또한 ‘판매체험관’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상품·서비스 유형별로 구성됐으며,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와 자금 등에 대한 상담(컨설팅)을 위한 공공·민간 상담관도 함께 준비된다.

전주시청 별관 1층에 펼쳐진 형식으로 준비되는 ‘정책홍보관’에서는 사회적경제 주요 정책과 역



사,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 그 외 자치단체의 정책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여기에 새정부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에너지전환과 통합돌봄, 지역순환경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사회적경제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포럼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이번 박람회에서는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의 사회적경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청소년 창업 박람회’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성장 가능성을 발표하는 ‘IR 전국 발표대회’ △사회적경제의 가치인 상생을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상생오락실’ △사회적경제 관련 퀴즈를 통해 참가자들의 사회적경제 이해도를 높이는 ‘협동글든벨’ △스텝프루어 △쿠존지급 프로모션 등 사회적경제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이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될 예정이다.

시는 원활한 박람회 운영을 위해 행사장 내 운영 지원센터 등 안내·편의시설을 마련하고 자원봉사자 등 안전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 ‘태조어진 봉안의례’ 전주서 재현

문헌 등 철저한 고증 거쳐 노송광장·경기전 구간서 진행

경기전에 봉안된 태조어진을 모사하기 위해 서울로 모셔갔다가 다시 전주로 모셔 오는 봉안의례가 조선왕조의 본향인 전주에서 재현됐다.

전주시는 지난 18일 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충경로사거리와 풍남문사거리를 지나 경기전 구간까지 진행된 태조어진 봉안행렬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의 관심과 참여 속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태조어진 봉안의례는 1688년(숙종 14년)의 봉안의례를 문헌 등 고증을 거쳐 재현한 것으로, 조선왕조의 본향이 태조어진 진본이 모셔진 전주에서만 볼 수 있는 전통문화콘텐츠이다.

재현행사는 주정소(왕이 행차 중에 멈추어 쉬는 곳)로 정한 전주시청 앞에서 행렬의 출발을 알리는 진발의식

(출발을 알리는 의식)으로 시작했다.

봉안행렬은 어진을 호위하는 전라감사가 선두에 서서 이팔고, 전사대와 신원(神輿), 사관, 도제조, 종사 등이 그 뒤를 뒤따랐다.

전주한옥마을에 도착한 행렬은 경기전 정문을 통과했으며, 어진은 경기전 정전에 봉안됐다.

이어 태조어진 봉안을 잘 마쳤음을 알리는 고유제가 마지막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문화예술 동호인과 가족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 행렬단 200여 명이 함께했으며 △올림픽 유치 기원 열연을 담은 지역 청소년 100인의 태권도 단체 품새 퍼포먼스 △50여 명의 효림초등학교 기절놀이 끝나무 아이들의 공연으로 이번 행렬에 감동을 더했다.

시민과 관광객은 기존보다 장엄함과 재미를 더한 이번 행렬에 환호하며, 조선왕조 의례 문화를 함께 즐겼다.

이번 2025 조선왕조 태조어진 봉안의례는 (사)전통문화마을 유투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다시 보기를 통해 다시 감상할 수 있다.

／권희성 기자

## ‘제19회 전주평생학습한마당’ 성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평생학습도시인 전주시가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와 학습 문화 확산을 위한 평생학습축제를 열었다.

전주시는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제19회 전주평생학습한마당’을 개최했다.

올해 행사는 ‘학(지)-속전주, 함께있학(지)’라는 주제 아래, 배움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세대와 세대를 잇는 평생학습 공동체의 가치를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행사 개막식은 첫날 오전 10시, 내빈 등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선언, 유공 표창, 퍼포먼스 등으로 꾸며졌다.

올해 한마당에는 전주지역 151개 평생학습 기관·단체와 시민 2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생학습 홍보체험부스 △학습 동아리 공연 △현과 사유를 위한 정신건강 특화 공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특히 올해는 전주시 정신건강 특화 정책과 연계한 마음 온 심원(心源)카페가 새롭게 마련돼 차와 향유, 여유, 자유 등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시민들에게 휴식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행사 이틀간 중앙무대에서는 ‘모여라 세대공간’이라는 이름의 평생

학습 동아리 공연이 펼쳐졌다.

이를 통해 청소년부터 어르신 동아리까지 20여 팀이 악기와 댄스, 보컬, 패션쇼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해 전 세대가 함께 배우고 표현하는 기회를 공유했다.

특히 첫날 늦은 오후에는 전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대의 평생학습 밴드 동아리의 발표공연과 더불어 청소년 댄스팀의 초청공연도 펼쳐져 시민들에게 가을 밤의 추억을 선사했다.

／권희성 기자

## ‘엄마손김치찌개·슬기네가맥’ 착한가게 현판식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주민센터(동장 이미영)와 덕진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안옥희)는 지난 16일 착한가게에 동참한 ‘엄마손김치찌개’ (대표 차명진), ‘슬기네가맥’ (대표 최영란)에 착한가게 현판 전달식을 갖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착한가게’ 정기기부 참여는 자영업 및 중소기업 등 다양한 업종의 가게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나누는 실천의 일환으로 덕진동 내 도움

이 필요한 위기가구지원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특히 지난 9월 ‘금쪽같은 내부모님’ 착한가게에 이어 이번 동참으로 덕진동 착한가게 9호점(엄마손김치찌개), 10호점(슬기네가맥)이 되었다.

‘착한가게’ 후원은 매월 CMS 자동이체 방식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후원가게에는 인증편을 전달하여 나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의 논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증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들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